함께충남 대한민국의 힘

충남도정

1990년 12월 15일 창간 안내 041-635-2484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제1058호
2026년 2월 5일 ~ 2026년 2월 14일

문자 음성변환 바코드 '보이스아이'

도민 뜨거운 이웃사랑 '사랑의 온도탑 활활'

희망2026나눔캠페인
62일간 211억원 모금

어려운 이웃을 향한 충남도민의 따뜻한 마음이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을 활활 타오르게 했다.

도에 따르면 2월 2일 도청 남문 다목적광장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경기침체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들의 따뜻한 참여로 목표 모금액 210억 4000만원을 뛰어넘는 211억 6000만원(잠정)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 사랑의 온도 101℃를 달성했다.

모금현황은 2월 중순 최종 집계될 예정이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캠페인을 통해 소중한 성금을 기부해 주신 기업과 단체, 개인 기부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모아주신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보훈정책과 041-635-4246



사랑의 온도탑.

장애인 복합형 보호시설 이용하세요

보호자 부재 시 최대 30일 돌봄

충남 부여에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장애인 복합형 보호시설이 문을 열었다.

도에 따르면 1월 29일 부여군 규암면 내리 246-4 일원 1398㎡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023.25㎡ 규모로 건립한 장애인 복합형(주간·단기) 보호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시설은 한 건물에서 장애인 단기거주와 주간 상시 보호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재가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여행, 경조사 등 상황 발생 시 일시보호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정원은 단기거주 10명, 상시보호 12명이다.

상시보호는 관할 시군, 일시·긴급보호는 도내 거주 발달 장애인이면 이용 가능하다.

대상은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6개월 이내 평일, 주간보호와 24시간 체계의 30일 이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또는 도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5



설 앞두고 분주한 예산능금 유통센터 충남 예산군 신암면에 있는 예산능금조합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설을 앞두고 국내 대형쇼핑몰과 대형마트의 PB상품으로 출시할 사과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유통센터에서 설선물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물량은 하루 100톤 가량으로 평소 물량의 4~5배에 달한다. 사진/도정신문팀

민선8기충남도정

도정 비전

함께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행정통합 특별법 Q&A	2면
충남우리마을	4면
설연휴 가볼만한 곳	6면
맛있는 충남	7면
충남이어가	12면
농사랑 설 선물 특별전	16면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논산딸기축제, 문화관광축제 선정

3월 26일부터 나흘간 개최
보령머드 등 명예축제 지정

충남 논산의 대표 축제인 '논산딸기축제'가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역문화에 바탕을 둔 다양한 축제중 관광상품성이 높은 축제인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27개를 발표했다.

'2026~2027 문화관광축제'는 지난 2년간 전문가와 소비자, 지역주민 평가결과와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여부,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충남에서는 '논산딸기축제'가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신규 지정되고 '보령머드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금산인삼축제'가 명예문화관광축제로 각각 지정됐다.

논산딸기축제는 지역특산물인 논산딸기를 중심으로 체험·전시·공연·관광을 연계한 농산물 기반 축제로, 올해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다양한 딸기 품종을 먹어보고 구매할 수 있다.

이외 보령머드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금산인삼축제는 오랜 기간 국내외 관광객의 사랑을 받아온 도 대표 축제이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등 '케이-컬처'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라며 "문체부는 '글로벌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확대해 국내외 관광객이 축제를 방문하기 위해 지역으로 한 번 더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광진흥과 041-635-3892
/문화체육관광부

2026~2027 문화관광축제

강릉커피축제, 고령대가야축제, 광안리어방축제, 광주김치축제, 논산딸기축제, 동래읍성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밀양아리랑대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부천국제만화제('27), 부평풍물대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수원화성문화제, 순창장류축제('26), 시흥갯골축제, 세종한글축제,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축제('26), 연천구석기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울산옹기축제, 음성품바축제('27)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정선아리랑제, 철원한탄강얼음트레킹, 청송사과축제, 평창송어축제, 화성뱃놀이축제

※ 축제명 가나다순



충남도서관에 '워디·가디' 포토존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앞 잔디광장에 충남 관광캐릭터 워디·가디 대형 풍선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이 마련됐다. 충남도서관을 찾은 방문객들은 귀엽고 친근한 워디·가디 캐릭터와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면 된다. /충남도서관 041-635-8022

119 영상통화로 주차장 화재 초기 진압

"화재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시민과 119 상황실 소방관이 영상통화로 차량 화재를 초기 진압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월 26일 아산시 배방읍 소재 고층 오피스텔(지하 5층, 지상 48층)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발생했으며, 신고자 A씨가 화재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충남119종합상황실은 영상통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초기 진화 방법과 안전한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 시 영상통화를 활용하면 현장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대응 안내가 가능하다"며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 상황실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89



영상통화로 차량화재 대처요령 안내하는 모습.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Q&A

Q1. 특례 반영 TF는 무엇인가?

A.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을 위해 구성된 실무 중심 태스크포스(TF)다.

Q2. TF 구성은?

A.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단원으로 활동한다.

Q3. 특례 조항은?

A.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재정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 257개가 담겨 있다.

Q4. 왜 원안 통과가 핵심일까?

A.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발생한 세금 전액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지역기업이 낸 세금 절반을 지역 몫으로 가져올 수 있다. 360만 대전·충남 규모에 맞춰 부가가치세 5%를 추가 확보한다.

충남도정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발행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인 공보담당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484





독일인 사로잡은 '금산 인삼'

현지 시간 1월 24~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식품농업 박람회에서 금산인삼의 역사와 우수성이 소개됐다.

1,500여년 전 강처사의 효성으로 탄생한 금산인삼은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삼 효능에는 간장 보호·당뇨병 개선, 면역기능 회복, 동맥경화증 및 고혈압 예방·항스트레스 작용 등이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인삼차와 인삼 과자, 인삼 냉채, 인삼 떡갈비, 인삼 요거트와 홍삼 절편으로 구성한 인삼 코스요리 등이 전시됐다.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4

수소차·전기차 보조금 신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시군 누리집서 신청방법 확인

▲수소차

충남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차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 운송업체가 수소버스를 구매하면 저상버스는 3억 3000만원, 고상버스는 4억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저상버스는 3300만원, 고상버스는 1억 1000만원 상향됐으며, 승용차는 지난해와 같은 3250만원이다.

세부 지원 내용은 승용차 400대, 저상버스 25대, 고상버스 40대 등 총 456대다.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10개 교체 비용 5억 5000만원도 지원한다.

이용자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도 설치된다.

올해 보령시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계룡시 1곳, 부여군 1곳, 천안시 2곳이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현재 도내에는 7개 시군에 13곳(25기)의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기환경과 041-635-4429

▲전기차

올해 충남의 전기자동차 교체 지원대상은 지난해 보급 물량인 1만 2183대 대비 13% 증가한 1만 3763대 규모이다.

올해 신설된 내연기관차 교체 지원은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 최대 130만원을 지원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는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최대로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는 도비 200만원을 포함해 최대 1180만원, 전기화물차는 도비 240만원을 포함해 최대 1850만원, 전기승합차 최대 1억 70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160만원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및 전환지원금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기환경과 041-635-4429

시군·한국국토정보공사서 접수

올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농업 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이며,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할 때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 신청은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선정통지서를 지적측량 접수처에 제출하면 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시·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관리과 041-635-4792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슬로건·상징물(EI) 공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공식 슬로건과 상징물(EI)을 공개했다.

공식 슬로건은 '논산, 세계 딸기산업의 기준이 되다'이며, 함께 공개된 상징물(EI)은 딸기의 상징성과 산업·기술의 혁신성,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를 디자인 개념(콘셉트)에 반영하여 엑스포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엑스포 캐릭터는 기존 딸기축제 캐릭터를 활용한다.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K-베리! 스마트한 농업,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2027년 2월 26일부터 24일간 논산시 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 041-746-6671



그림으로 보는 충남의 과거와 오늘

시간이 멈춘 청소역을 그리다

1929년 '진죽역'으로 시작, 1988년 청소역으로 변경된 이곳은 녹색지붕의 아담한 모습으로 근대 간이역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2006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장항선에서 제일 오래된 역으로 하루 8번 무궁화호가 정차하며 스무 명 남짓 이용하는 작고 고요한 역입니다.

아침 일찍 홍성역에서 출발하여 20분만에 도착한 청소역, 플랫폼이 너무 좁아서 놀라고 타고 내리는 사람이 적어서 또 놀라고

옛 감성에 깜짝 놀란 청소역!

이 오랜 역의 수수한 아름다움이 찾는 이들에게 그리운 풍경으로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라며...

역사 공원 벤치에서 찬바람 맞으며 그립니다.

/그림 · 글 어반스케치 작가 최미경





평균 연령 84세 할머니들로 구성된 회춘유랑단은 2018년 창단해 100회 이상 공연에 참여하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안국사 배바위', '우리 동네 잔칫날' 등 마을 관련 인형극을 선보이며 2018년 충남 아마추어 연극제 은상을 받았다.

천 년 역사와 문화예술로 농촌 희망을 쏘다

충남 우리 마을

① 당진시 정미면 산성리

충남도정신문은 충남지역언론연합과 함께 충남의 특색있는 마을을 소개하는 '충남 우리 마을'을 연재합니다. 고령화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딛고 삶과 전통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스스로 길을 찾아나서는 여정을 지역언론의 시선에 담아 전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편집자 주〉



회춘유랑단 활동 모습.



정미면 산성리마을회관 모습.



마을회관 앞 풍경.

당진시 정미면 산성리가 천 년 역사를 간직한 채 농촌 재생의 새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백제 산성과 거북 전설을 품은, 이 마을은 '온고지신(溫故知新)' 비전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백제 시대부터 이어진 천년 마을

산성리는 마을 이름 자체가 역사다. 마을 뒷산인 자모산 정상부에 백제 시기 축조된 *테뫼식 산성이 자리하고 있어 붙여진 명칭이다.

(참조 *테뫼식 산성은 성벽이 산의 정상을 마치 '머리띠(테)'를 두른 듯한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산성은 지역 방어와 군사 거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또한 마을에는 거북 모양 비석 받침돌인 귀부가 남아 있는데, 과거 이곳에 중요한 비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토기편과 기와편이 산재한 유물산포지는 오랜 시간 사람들이 삶을 이어온 현장이다.

풍수지리적으로 산성리는 '거북이 물을 마시는 형국(龜飮向井)'으로 기록된 길지다. 자모산의 큰 봉우리와 작은 봉우리에는 남편을 기다리다 산봉우리로 변한 부인과 아들의 전설이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큰 봉을 엄마봉, 작은 봉을 아들봉이라 부른다.

산성리에는 거북골, 되백골, 장수골, 탑골 등 여러 자연부락이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비전 아래 노령화 농촌 마을의 표본 제시

회춘유랑단 할머니들이 일군 기적 마을 주민의 인식 변화 가져와

장수골은 물이 오래 나온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으로, 이곳에서 흘러나온 물이 산성저수지를 이룬다. 되백골은 보리 한 되를 심으면 백 대를 먹었다는 뜻이다. 1957년까지만 해도 서산군에 속했던 산성리는 당진 사람들이 서산시장을 가는 길목이었다. 회천고개라 불리며 인근에는 슈퍼, 주막, 약국이 있어 번성했다.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번성했던 회천고개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문화예술로 되찾은 마을 활력

그러나 산성리도 농촌 마을의 고령화를 피해 가지 못했다. 현재 61가구 82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은 7~8년 전만 해도 100여 가구가 살았지만, 빈집이 늘고 있다.

위기 속에서 산성리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2018년 평균 연령 84세 할머니들로 구성된 회춘유랑단을 창단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이 극단은 지금까지 100회 이상 공연에 참여하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안국사 배바위', '우리 동네 잔칫날' 등 마을 관련 인형극을 선보이며 2018년 충남 아마추어 연극제 은상을 받았다.

2017년부터 시작된 마을 축제도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농산물 판매, 명랑 운동회, 전통떡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된 축제는 마을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낸 할머니들

회춘유랑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성리 할머니들은 젊은 시절 고된 시집살이를 했다.

강추자(83) 할머니는 24살에 고대면 당진포2리에서 시집왔다. 강 할머니는 "신작로가 작아 사람 하나 다닐 만하고 양쪽으로는 다 솔밭이었다"며 "마을의 집들은 다 초가집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마을에는 100가구 정도가 살았다. 강할머니는 "시집살이 하느라 마을 어디 나가지도 못했다"며 "바깥에 나갔다 오면 시어머니한테 혼이 났다. 밥을 잘 지으라고 하면 드럽게 했다고 혼나고, 대충 하면 또 대충했다고 혼났다"고 했다.

강혜정(89) 할머니는 18살에 고대면 항곡리에서 산성리로 시집왔다. 강 할머니는 "중매서서(시집)왔는데 중매쟁이가 거짓말을 했다"며 "소 작지 열 마지기, 제논이 열 마지기, 집도 크다고 했는데 막상 시집을 오니 제 논은 세 마지기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샘터에서 빨래를 하면서도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다. 절구대로 방아를 찧어 밥을 해 먹고, 물도 길어서 날라 먹었던 시절이었다.

서산시 성연면에서 태어난 정정례(85) 할머니는 당진 출신 남편을 만나 24살에 산성리로 시집왔다. 정 어르신은 슬하에 7남매(1남 6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왔다. 현재까지도 밭을 일구고, 최근에는 콩을 수확하는 등 정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회춘유랑단 활동을 하며 삶의 자존감도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때에 독학으로 글공부를 시작했고 주변의 도움으로 시도 쓰기 시작했다. 그 덕에 창작시 공모전에도 참여해 상도 받았다. 회춘 유랑단에 참여하며 활동하는 할머니들의 변화는 마을의 변화를 이끌었다.

문한석 이장은 "회춘유랑단의 활동은 마을 주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는 곧 마을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산성리는 2022년 9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포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온고지신 비전으로 미래 준비

백제 산성과 거북 전설을 품은 천년 마을 산성리가 문화예술과 주민 자치로 농촌 재생의 새 모델을 만들고 있다.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과거의 유산을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산성리의 도전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농촌 마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최운연 당진시대(충남지역언론연합) 기자

‘태안 세계튤립꽃박람회’ 4월 1일 개막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36일간
남면 마검포 일원으로 장소 이전


2023년 태안 세계튤립꽃박람회 모습.

세계 5대 튤립축제로 손꼽히는 ‘2026 태안 세계튤립꽃박람회’가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36일간 충남 태안군 남면 마검포 일원에서 열린다.

태안 세계튤립꽃박람회는 그동안 꽃지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돼 왔으나, 2026년에는 장소를 이전해 보다 확장된 공간과 새로워진 연출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주최 측은 이번 박람회가 국제 꽃축제로서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람회 측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확보한 우수 튤립 품종이 대규모로 식재되며, 총 식재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초대형 신규 조형물은 전시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핵심 콘텐츠로, 향후 태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요 전시 공간으로는 ‘베르사유 궁전 정원’을 모티브로 한 튤립 정원이 조성된다. 유럽식 정형 정원미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연출 구역으로, 정원 예술과 꽃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관람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람 동선과 편의시설도 전면 재구성돼 접근성과 체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한편,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봄꽃정원이 연장 운영되며, 야간 빛축제는 상시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운영 프로그램과 입장권 정보는 추후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태안군

청양,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

최대 30만 원까지 보조

청양군이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인증 제품을 구매·설치한 후 신청하면 구매비의 50%, 최대 30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올해 65가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가구당 1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매·설치 비용의 50%이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가능한 기기는 건조·발효·소멸 방식 등 감량 효과가 검증된 품질인증 제품이다.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직접 배출해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먼저 자부담으로 인증 제품을 구매해 설치한 후, 설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양군



지역게시판

보령 머드뷰티치유관 30% 할인

보령시가 6월 30일까지 머드뷰티치유관 30%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머드화장품 출시 30주년 행사로 머드화장품을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피부관리(고급·기초) 및 머드족욕 프로그램을 30%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할인된 가격은 피부관리 고급(60분) 3만5천원(이하 정상가 5만원), 피부관리 기초(40분) 2만1천원(3만원), 머드족욕(20분) 7천원(1만원)이다.

전화(☎ 041-936-9676) 예약 방문객은 대기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1996년 팩, 보디 클렌저, 비누, 샴푸 등 4종으로 시작된 보령머드제품은 현재 37종이 생산되고 있다.

/보령시

서산 겨울 테마파크 연장 운영

서산시가 겨울 테마파크를 2월 8일까지 일주일 연장 운영한다.

현재 1800㎡ 규모의 아이스링크, 600㎡ 규모의 아이스튜브 슬라이드, 눈 놀이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점 등 편의시설과 300면의 주차장을 갖췄다.

운영 시간은 화·수·목·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월요일은 휴장한다.

입장료는 무료며 아이스링크와 아이스튜브 슬라이드는 각각 2000원, 피겨스케이팅은 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장비가 있는 경우 아이스링크 이용료는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산시



예당관광지 캠핑장 사전예약

예당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이 2월 1일부터 3월 캠핑장 이용 사전예약을 접수한다. 〈사진〉

예약은 예당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예약을 완료한 이용객은 3월 한 달간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을 희망하는 방문객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당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은 아름다운 예당호가 한눈에 보이는 빼어난 경관과 탁 트인 전망이 일품인 출렁다리를 비롯해 느린호수길, 조각공원, 모노레일 등 낭만과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편의시설까지 겸비한 캠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캠핑장 예약 및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당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캠핑장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군

부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부여군이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산정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부양비 제도는 가족으로부터 실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의 소득을 합산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족의 실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고령의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진다.

/부여군

설맞이 농특산물 온라인 특판전

서산뜨레몰·우체국쇼핑몰서
2월 18일까지 할인쿠폰 제공

서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특산물 온라인 특판전을 진행 중이다.

특판전은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으로 인기가 많은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2월 18일까지 진행된다.

특판전은 서산뜨레몰과 우체국쇼핑몰 2곳에서 진행한다.

서산뜨레몰은 가입자에게 전 품목 20% 할인쿠폰과 25%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우체국 쇼핑몰은 10% 할인쿠폰과 함께 품목별 특별 할인한다.

서산뜨레몰 20% 할인쿠폰은 1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25% 할인쿠폰은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6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우체국쇼핑몰 10% 할인쿠폰은 최소 결제 금액이나 할인 금액 한도는 따로 없으며, 서산시 농특산물 품목에만 적용된다.

/서산시

금산 농바우끄시기 국가무형유산 추진

여성 중심 기우제 성격 민속놀이

금산 농바우끄시기 국가무형유산 승격 타당성 조사 및 학술연구용역에 착수해 해당 민속놀이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지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금산 농바우끄시기는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느재마을)에서 전승돼 온 기우제 성격의 민속놀이로 약 7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놀이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들이 주축이 돼 진행한다는 점이다. 마을 부녀자들이 짚으로 꼰 굵은 줄을 시루봉 중턱에 있는 농바우(바위 모양이 농(籠)을 닮았다 해 붙여진 이름)에 걸어 잡아당기며 비를 기원한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부녀자들이 계곡물에 들어가 알몸으로 날궂이를 하는 파격적인 형태를 띠는데 이는 하늘이 상스러운 광경을 보고 비를 내려 씻어준다는 민속적 해학을 담고 있다.

농바우끄시기는 2000년 충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금산세계인삼축제 등에서 시연되며 지역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며 그 독창성을 인정해 국가 차원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산군은 국가유산청에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산군


홍성, 참소라 대풍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이 1월 17일 새조개축제를 개막한 후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는 가운데, 천수만 죽도 주변에서 참소라 채취가 대풍을 이루며 전국의 수산물 판매 중개인들의 발길도 함께 이어져 어업인들은 맹추위도 잊은 채 연일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홍성군

태안 고졸 학력 ‘검정고시반’ 운영

2월 11일까지 학습자 모집

태안에서 성인 학습자들의 고등학교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한 ‘2026년 고등검정고시 준비반’이 운영된다.

학습자 모집 기간은 2월 11일까지다. 고등 학력 취득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태안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군 평생교육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수업은 2월 23일부터 매주 화·목·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다. 강사료는 물론 교재와 문구류 등 학습에 필요한 비용 전액 무료다.

군은 연 2회 시행되는 시험 일정에 맞춰 기초 학습부터 기출문제 풀이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 학습 수준에 따라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과목을 우선 선택하게 하는 등 전략적인 시스템으로 학습 성취감을 높인다.

한편,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해교육’ 6개 과정은 2월부터 운영되며, 마을 대표가 신청하면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문해교실’ 16개소도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태안군

KOR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웃음과 건강이 가득한 새해

설 연휴에 가 볼 만한 충남 명소 福



각원사

천안의 진산으로 불리는 태조산 자락에 자리한 이곳은 높이 15m, 무게 약 60톤 규모의 청동대좌불(아미타불 좌상)로 유명하다.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245



제민천

공주시 왕도심을 가로지르는 이곳은 시민과 여행객이 함께 찾는 생태하천으로, 수변녹지와 휴식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다.

위치 : 충남 공주시 왕도심 일원



천북 굴단지

보령의 최북단 바닷가에 조성된 이곳은 겨울철 별미로 알려진 굴 특산단지로, 서해안에서 갓 잡은 신선한 굴을 맛볼 수 있다.

위치 : 충남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외암민속마을

중요 민속자료 제236호로 지정된 전통민속마을로, 약 500년 전부터 형성된 마을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



해미읍성 설 명절 민속 행사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민속놀이와 전통공연을 통해 가족과 함께 우리 고유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 문화 명소다.

위치 : 충남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143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근대 사교와 오락시설의 옛 모습을 재현한 공간이며, 근대 건축물과 청년 창업 이 어우러진 역사와 현대가 함께 느껴지는 문화 거리다.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일원



사계고택

사계 김장생(1548~1631) 선생이 1602년에 지어 부인순천김씨와 함께 거주한 집이다. 원래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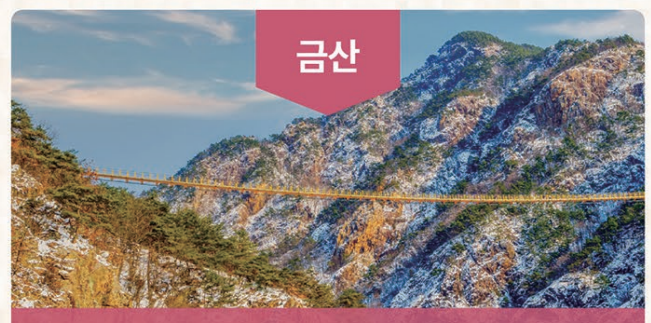
위치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22-4



삽교호 관광지

서해대교가 한눈에 펼쳐지는 경관을 즐길 수 있으며, 대관람차와 함상공원, 놀이동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국민관광지이다.

위치 : 충남 당진시 삽교천3길 100



월영산 출렁다리

길이 275m, 높이 45m, 폭 1.5m의 출렁다리로, 금강 상류의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241-8



정림사지와 정림사지박물관

정림사지는 백제 성왕이 538년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기며 세운 대표 사찰 터로, 왕궁 정남쪽에 자리한다.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은 현지 생태계를 그대로 재현, 2,400여종의 동식물이 살아 숨 쉬어 미지의 생태를 탐험할 수 있다.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칠갑타워

칠갑타워는 칠갑산의 맑은 공기와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관광 명소이다.

위치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10



홍성남당항 새조개 축제

겨울바다의 보물이라 불리는 새조개의 계절을 맞아,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열린다.

위치 :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해양분수공원 일대



예당호 전망대

예산군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형상화한 70m 높이의 전망대로,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모노레일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위치 :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159-22



영목항 전망대

영목항 전망대는 통유리 전망층에서 360도로 영목항, 장고도, 고대도 등 섬과 해상교량, 수평선을 감상할 수 있다.

위치 :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506 (영목항 전망대)

그래픽 : 박건부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맛있는 충남

(3)겨울공주군밤축제

뜨거운 군밤 '호호' 불어먹는 재미


지름 2m가 넘는 대형화로에 모여 군밤 굽는 사람들. (2025년 겨울공주 군밤축제 사진전 금상 이광수)


공주알밤.


군밤굽기.
(2025년 겨울공주 군밤축제 사진전 입선 박순덕)

'눈이 온다 눈이 와요~ ♬ 이산 저산에 어~얼싸 흰 눈이 온다, 얼~싸좋네, 아~좋네 군밤이여~♬'

군밤의 계절이 돌아왔다. 겨울밤 안방 화롯불에서 오순도순 둘러앉아 구워 먹던 군밤. 이제는 대형 화로에서 추위를 녹이며 수십 명이 모여 군밤을 구워 먹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충남 공주에서 열리는 '겨울공주군밤축제'.

전국 밤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공주는 2010 공주알밤특구로 지정된 후 지난해 전국 175개 지역특화발전특구 중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특구의 규제 특례를 활용해 '겨울공주 군밤축제', '대한민국 알밤 박람회' 등 대표 행사를 열며 밤 산업의 관광 자원화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왔다.

올해 공주 군밤축제는 9번째. 해마다 수만 명이 밤을 굽고, 또 구우면서 피어나는 연기는 행사장을 하얗게 뒤덮는 대장관도 연출된다.

군밤축제 100배 즐기기

공주시는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자 행사장소를 종전 공주 한옥마을 앞 고마센터에서 금강 변인 공주 신관공원과 미르섬으로 옮겼다. 장소가 넓고 주자 편리 등 접근성이 훨씬 좋은 곳이다.

올해 행사의 슬로건은 '불타는 밤, 달콤한 공주'로 알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그리고 먹을거리가 등장한다. 또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2026 대한민국 밤 산업 박람회'도 열린다.

그렇다면 군밤 축제를 100배 즐길 방법은 뭘까.

가장 흥미로운 행사는 지름 2m가 넘는 대형화로 앞에서 직접 밤을 구워 먹는 행사다. 화로 14개에서 밤을 굽는 체험은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밤뿐만 아니라 소시지, 닭꼬치, 마시멜로 같은 먹거리도 함께 그릴로 구워 먹으며 겨울 감성을 맘껏 즐길 수 있다.

밤을 이용한 간식 만들기도 체험행사로 진행된다. 이밖에 제기차기와 투호도 즐길 수 있다. 신관공원 옆 미르섬에는 눈썰매와 스핀 썰매를 즐길 수 있는 '눈꽃왕국'이 조성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퍼레이드·사진 촬영·체험도 즐길 수 있다.

대형 화로 체험과 체험 부스는 오후에 붐빌 수 있으니 이왕이면 오전에 축제장에 도착해보자.

추운 날씨에 대비해 핫팩, 두꺼운 외투, 장갑을 준비하는 게 좋다.

주변 관광지 즐기기

행사장에서 금강 건너편의 백제시대 대표 성곽인 공산성은 공주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가봐야 할 곳. 성곽을 따라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유유히 흐르는 금강과 공주시내를 배경으로 사진찍기에 좋다.

차량으로 10분쯤 이동해 무령왕릉과 국립공주박물관도 가봐야 할 곳이다. 백제 왕릉과 다양한 유물을 볼 수 있는 역사 깊은 관광지다.

공주 도심을 흐르는 제민천과 주변 카페거리도 최근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는 곳이다. 작은 서점과 갤러리, 특색있는 카페들이 많아 산책과 휴식하기에 좋다.

조금 멀리 가보고 싶다면 천년 고찰 마곡사를 권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本寺)인 마곡사는 640년(신라 선덕여왕 9)에 자장대사가 창건했으며 고즈넉한 산책길과 백범 명상길, 그리고 주변 암자를 가볍게 걷기에 좋다. 대웅보전(보물 801)·대광보전(보물 802)·영산전(보물 800)·5층 석탑(보물 799) 등 볼 게 많다.

공주 먹거리

공주는 백제의 왕도(王都) 답게 먹을거리도 많다.

우선 축제장에서는 축제 성격에 맞게 밤참쌀떡과 밤빵 등 밤으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를 판매한다. 공주밤을 활용한 밤 막걸리는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으로 축제 분위기에 어울린다.

불고기·비빔밥 위에 오독오독 씹히는 생밤 비빔밥도 명품이다.

이밖에 어묵, 떡볶이, 부침개, 핫초코 등 겨울에 맞는 간식의 향연도 펼쳐진다.

축제장을 벗어나면 먹을거리는 더욱 풍성해진다.

밤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밤빵·밤 파이·밤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한다, 밤을 주제로 한 빵·디저트를 제공하는 카페도 있다. 밤떡과 밤 라떼도 어울리는 조합이다.

밤 파운드, 밤 양갱, 밤 초콜릿 등 공주 특산 기념품도 축제장·시장·베이커리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밖에 생밤이 들어간 육회비빔밥, 밤묵 등도 있다.

축제장에서는 밤의 경우 품종마다 가격이 다르다. 일반 밤(1kg)은 7000원, 옥광 1만 4000원, 대보 1만 1000원, 포로탄 1만 원 등이다. 또 군밤과 깐밤(200g)은 5000원에 판매된다.

/이기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공주 맛밤.



▲ 알밤 막걸리.

밤으로 맛있는 디저트 만들기

좋은 공주 알밤을 구매하려면 공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https://www.gmjangter.com)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곳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비영리 직거래장터로 알밤 빵과 알밤주, 밤샌드쿠키, 밤약과, 맛밤, 깐 밤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구매 금액의 3%를 마일리지로도 적립해준다.

알밤을 이용해 다양한 디저트도 직접 만들어보자.

▶밤양갱 만들기

- **재료 :** 삶은 밤 200g, 팥앙금 300g, 한천가루 5g, 물 400ml, 설탕 50g
- **만드는 법**
  ① 삶은 밤은 으깨거나 작게 다진다
  ② 냄비에 물과 한천을 넣고 끓이 녹인다
  ③ 냄비에 팥앙금과 설탕, 으깬 밤을 넣고 약불에서 저어준다
  ④ 한소끔 끓으면 틀에 붓고 실온에서 굳히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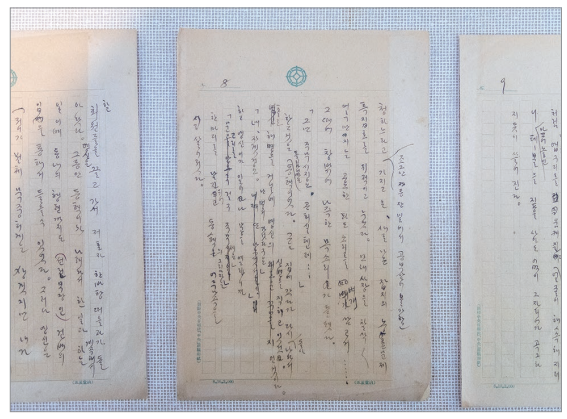
▶밤 스프 만들기

- **재료 :** 삶은 밤 200g, 우유 400ml, 버터 20g, 소금 약간, 꿀 또는 설탕 약간
- **만드는 법**
  ① 밤과 우유를 믹서기로 곱게 간다
  ② 약불로 냄비에 버터를 넣어 녹인 뒤 곱게 간 우유와 밤을 넣는다
  ③ 약불에서 살짝 데친 뒤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완성.





◀심훈기념관 전경.



▲소설 상록수 원고본.

‘그날’ 향해 타오른 불꽃 같은 삶

충남 지역 작가의 발자취를 찾아서

〈10〉 심훈



심훈 작가. /심훈기념관 제공

소설 ‘상록수’가 뿌리 내린 땅

겨울 들판과 마주하면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나무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매서운 바람에도 꿋꿋이 서 있는 기상이 마치 시대의 억압 속에서 ‘그날’을 염원했던 심훈의 저항 정신을 닮았다. 차가운 계절에 더욱 빛나는 상록수, 그 생명력을 만나고자 충남 당진의 〈심훈기념관〉을 찾았다.

서울에서 태어난 심훈이 충남 당진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의 극심한 검열과 탄압으로 예술적 자유가 가로막히자, 그는 부모님이 머물던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로 내려왔다. 이는 단순한 은둔이 아니었다.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타개할 힘이 농촌에 있다고 믿었던 그는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당진의 흙을 밟은 것이다.

이곳에서의 생생한 목격담은 농촌 계몽 소설의 백미인 『상록수』의 밑거름이 되었다. 당시 부곡리에서는 심훈의 장조카인 심재영이 주축이 되어 ‘공동경작반’을 이끌며 농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었다. 심훈은 농민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 땀 흘리는 청년들에게서 우리 민족의 희망을 보았다. 그래서 심재영을 소설 속 주인공인 박동혁으로, 안산에서 활동하다가 요절한 최용신을 여주인공 채영신으로 형상화하여 당진의 현실과 결합시켰다. 이처럼 『상록수』의 배경인 당진은 심훈의 문학 세계가 현실에 뿌리를 내리게 한 기름진 토양이 되어 주었다.

저항과 계몽으로 시대 밝히다

심훈의 삶은 짧았지만, 누구보다 뜨거웠다. 1901년 서울(당시 경기도 시흥군)에서 태어난 그는, 1919년 경성제일고보 재학 중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 감옥 안에서도 어머니께 편지를 쓰며 저항의 의지를 다졌던 청년 심훈은 이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신채호, 이회영 등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며 민족의 운명을 고민했다.

또한 그는 독립운동가이면서 시대를 앞서간 전방위적 예술가였다. 귀국 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자를 거치며 예리한 필치를 선보였고, 한국 최초의 영화소설 『탈춤』을 연재했으며, 직접 영화 〈먼동이 틀 때〉를 원작·각색·감독하여 한국 영화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그의 작품세계는 ‘저항’과 ‘계몽’으로 요약된다. 1930년 발표한 「그날이 오면」은 현대시 사상 가장 폭발적인 감정을 담은 저항시로 꼽힌다.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고, 자신의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서라도 독립의 행렬에 앞장서겠다는 그의 절규는 서슬 퍼런 시대에 던진 선언이었다. 이어 1935년 당진에서 집필한 소설 『상록수』는 농민의 자각과 연대를 그려내며 당시 지식인들에게 농촌으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 강령이 되었다.

‘기승전결’로 보는 일생

〈심훈기념관〉은 소설 『상록수』와 계몽운동을 조명하는 상징 공간과 ‘민족의식의 태동, 저항의 불꽃, 희망의 빛, 그날이 오면’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기-승-전-결’의 흐름으로 구성한 전시 공간으로 나뉜다. 육필 원고와 낡은 안경, 작가가 쓰던 책상 등 그의 숨결이 닿은 유품들은 그의 숨결을 고스란히 전한다. 특히 『상록수』의 초판본과 서대문형무소 수감 시절의 기록은 보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기념관은 정적인 공간에 머물지 않고 대중과 호흡한다. 매년 열리는 '심훈상록문화제'에서는 시 낭송 대회와 문학 강연 등이 펼쳐지고, 방문객들은 기념관에서 제공하는 시 쓰기 체험을 통해 작가의 문장을 손끝으로 새겨볼 수 있다. ‘심훈 탐정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미션을 수행하며 역사를 즐겁게 배울 수 있다.



심훈 동상.



상록수 문화관.



필경사.



심훈기념관 내부 모습.

붓으로 밭 갈던 ‘필경사(筆耕舍)’

기념관을 나서면 고즈넉한 초가집 한 채가 발길을 잡는다. 심훈이 1934년 직접 설계해 지은 집, ‘필경사(筆耕舍)’다. 이름 그대로 ‘붓으로 밭을 가는 집’이라는 뜻이다. 농부가 땅을 일구어 곡식을 거두듯, 원고지라는 밭에 붓으로 민족의 정신을 심겠다는 처절한 의지가 담긴 산물이다.

이곳은 아마도 그의 내면적 요새였을 것이다. 일제의 감시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상록수』를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은 처마 밑으로 보이는 당진의 들판이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소박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필경사는 억압의 시대에도 굴하지 않았던 지성인의 자존심처럼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필경사를 뒤뜰에서 울창한 대나무 숲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스친다. 마치 굳세고 청아한 그의 목소리처럼 들려온다. 진실을 기록하고 시대에 응답했던 심훈의 삶, 그 불굴의 정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다면 지금 당진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길 권한다.



글·사진
장수현 시인

400년 전 서산 기록한 타임머신

문화유산 100배 즐기기
(3) '호산록'





호산록

충남역사박물관 보물창고의 문을 열고 두 번째로 세상 밖으로 모신 유물은 조선 시대 서산 지역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 『호산록(湖山錄)』입니다. '호산(湖山)'은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충남 서산의 옛 별칭입니다. 1619년 서산의 선비 한여현(韓汝賢)이 편찬한 이 책은, 오늘날 우리에게 400여 년 전 서산의 풍경과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숨결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보통 '읍지(邑誌)'라고 하면 관청에서 행정적 필요에 의해 딱딱하게 정리한 기록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호산록은 다릅니다. 지역의 지식인이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한 '사찬 읍지'입니다. 관 주도의 기록이 놓치기 쉬운 마을의 세세한 전설, 인물의 일화, 당시의 풍습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2책으로 구성된 이 방대한 기록은 충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찬 읍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호산록의 가장 큰 매력은 자세한 기록에 있습니다. 단순히 산천의 이름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산의 아름다운 경치 여덟 곳을 노래한 '서산팔경'을 수록하여 당시 선비들의 풍류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인물에 관한 기록이 전체 분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서산에 부임한 수령들의 행적은 물론 재지 사족의 입향과 혼인 관계, 활약상 등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양반 사족뿐만 아니라 향리, 양민, 심지어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층의 삶을 가감 없이 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호산록에는 관찬 사료에서는 보기 힘든 보석 같은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몽유도원도'를 그린 화가 안견의 고향이 서산 지곡이라는 사실과, 전쟁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거북차'에 관한 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호산록』은 1500년대부터 1600년대 초반까지 서산 지역의 사회상을 가장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박물관 수장고에서 잠자던 이 낡은 종이 뭉치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여현이라는 인물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붓을 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17세기 충남 서해안의 역동적인 삶의 조각들을 영원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먼지 쌓인 고서 한 권이 품은 무게가 이토록 깊습니다. 서산의 산과 호수를 사랑했던 선비의 정성이 깃든 호산록,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충남역사박물관에서 직접 그 숨결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물관장 이경복

충남도서관 "지역 출신 시인·소설가 등 만나요"

3월부터 초청 프로그램

충남도서관은 충남 출신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도서관 문화교육동에서 충남 출신의 유명 작가 및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작가 초청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작가의 작품 세계와 창작 과정 등을 자세히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충남도서관은 3층 일반자료실 내 전시 서가에 김홍신·나태주·성해나·소중애·황선미 등 충남 출신 유명 작가 및 지역 내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 총 14명의 대표 저서 등을 전시하는 충남의 서재도 운영해 도내 작가를 소개하고 관련 도서를 추천한다.



/충남도서관 041-635-8065

길들인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



사서들의 서재



개와 고양이의 윤리학/최훈/사월의책/2025

동물에 대한 윤리적 담론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제는 육식과 동물 실험이다. 그러나 육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접하는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이미 도축이 끝나고 상품으로 가공된 이후의 모습이다. 실험에 쓰이는 동물도 살아있을 적에는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이상은 마주할 일이 거의 없다. 그 결과물도 의약품이나 공산품처럼 겉보기에는 동물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다. 이렇게 적어도 한 다리는 건너 접하다 보니,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살아있는 동물'은 반려동물이라 불리는 길들여진 동물이다. 함께 살기도 하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영상으로 접하기도 한다. 이들은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인간은 '반려'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진짜 반려자에게는 못할 짓을 하기도 한다. 애정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을 지배하고 영구적인 의존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동물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해야 서로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하지 않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저자는 동물 윤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철학자로, 길고양이·선택적 교배·개 식용 등 현실에 존재하는 도덕적 논쟁이나 딜레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동물을 길들여 같이 살아도 되는가에 이르는 근원적 질문에 이르기까지 그간 연구해 온 동물 관련 윤리적 담론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에는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내용 중 일부가 언급된다. '길들인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

우리는 진정으로 동물을 책임지고 있는 것일까? 동물과 함께 살고 있거나 동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읽고 고민해볼 만한 책이다.

저자는 저자 나름대로의 결론을 제시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읽으면서 각자의 답을 생각해보길 바란다. 1장에서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해주므로 그 부분을 먼저 읽어보고 더 읽어볼지 판단해보는 것만으로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것이다.

/김희영 사서(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화 행사



아트스토리 in 보령

기간 2026.02.06.(금)~27.(금)
시간 19:00
장소 보령문화예술회관
문의 041-930-3427



알라딘과 요술램프

기간 2026.02.07.(토)~03.28.(토)
시간 토 13:30, 15:30
장소 도고아트홀
문의 041-542-5145



<가족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기간 2026.02.07.(토)
시간 11:00, 14:00, 16:00
장소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문의 1599-0160



대한민국 최초 디바 '윤복희의 삶'

기간 2026.02.07.(토)
시간 17:00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문의 041-350-2911



홍성군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기간 2026.02.07.(토)
시간 15:00
장소 홍주문화회관
문의 041-634-0021



브라이언 신 앤 더 스윙메이커스 재즈

기간 2026.02.10.(화)
시간 19:00
장소 금산다락원 소공연장
문의 0507-1326-3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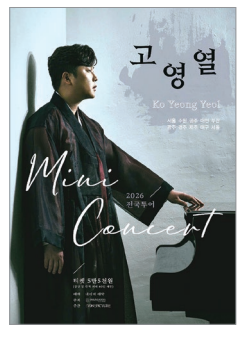
아즈마 아키와 함께하는 영화음악

기간 2026.02.22.(일)
시간 17:00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문의 0507-1338-4810



YB REMASTERED 3.0 : Odyssey

기간 2026.02.28.(토)~03.01.(일)
시간 토 18:00/일 17:00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문의 1544-1555



국악 고영열 전국 투어 미니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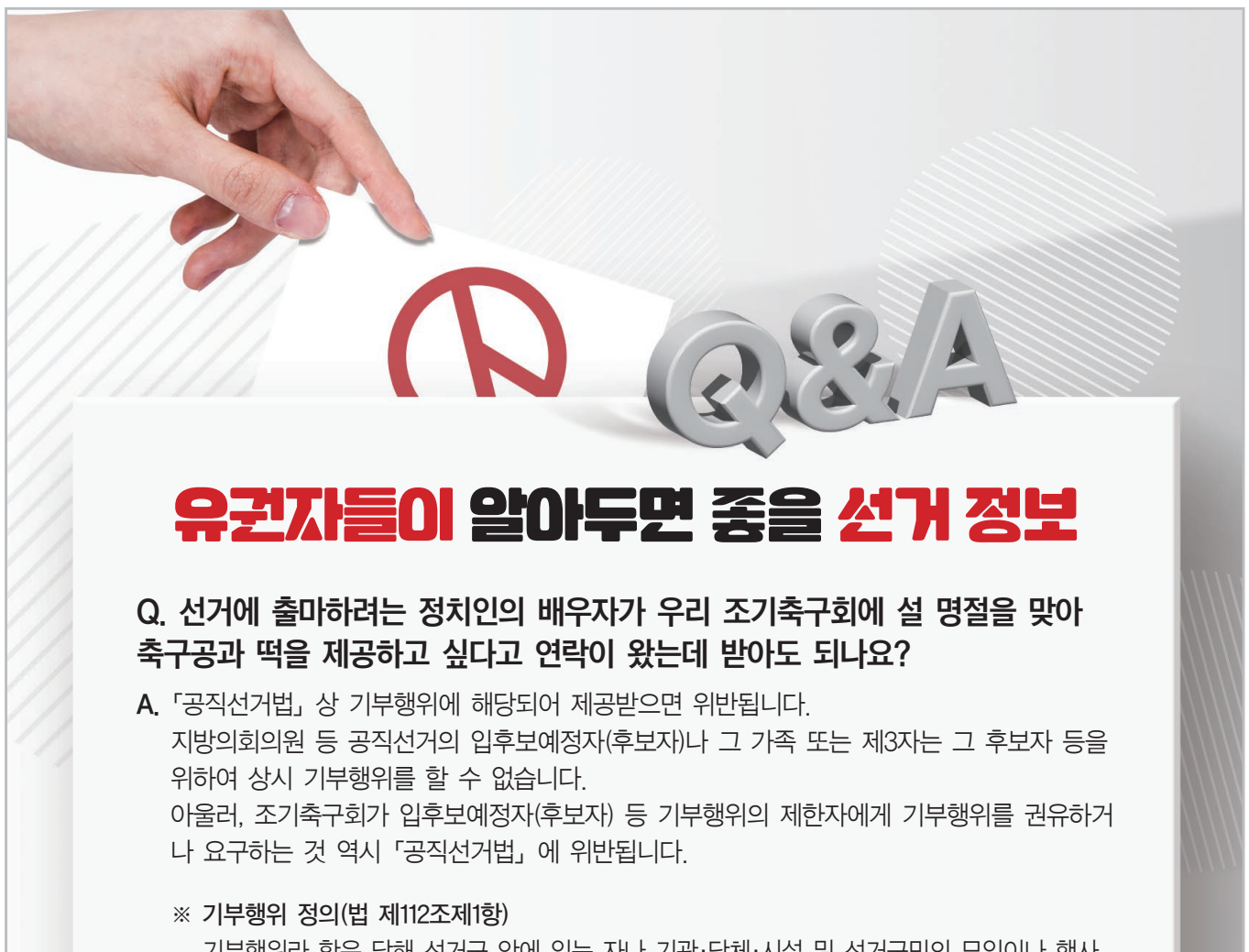
기간 2026.02.28.(토)
시간 17:00
장소 공주 바드챔버하우스알프홀
문의 070-8018-8473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기간 2026.03.06.(금)~07.(토)
시간 금 19:30/토 14:00, 18:00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1544-6399

자료제공/충남문화관광재단



유권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선거 정보

Q.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의 배우자가 우리 조기축구회에 설 명절을 맞아 축구공과 떡을 제공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받아도 되나요?

A.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제공받으면 위반됩니다.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는 그 후보자 등을 위하여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조기축구회가 입후보예정자(후보자) 등 기부행위의 제한자에게 기부행위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기부행위 정의(법 제112조제1항)**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Q. 저는 정치인을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돈이 많은 정치인이 선거에서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미국을 보니 선거자금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던데요?

A. 우리 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제도(총액 제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고 돈이 없지만 유능하고 훌륭한 신인 정치인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공직선거마다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많은 후보자라 하더라도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만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고, 제한액의 범위를 벗어나 비용을 지출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충청남도지사선거 및 충청남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약 15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 **선거비용 정의(법 제119조제1항)**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등을 말함.

※ 선거법 관련 궁금한 사항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세요.

제공/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두뇌회전 퀴즈 - 다른그림찾기



도깨비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신기한 시집을
냉큼 집어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 집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내가 불길에서 구한 거야.'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
※그림 속 말풍선에 자유롭게 글을 넣어보세요.

© 글 각색: 김복순 / 그림: 최정훈



: 吕

어지럼증, 몸이 보내는 균형 이상 신호

공공의료원 칼럼

어지럼증은 일상에서 비교적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이지만, 원인과 양상이 매우 다양해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한 피로나 컨디션 저하로 생기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계나 뇌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 귓속 전정기관, 근육과 관절에서 전달되는 감각 정보가 뇌로 정확히 전달되고, 뇌가 이를 종합해 신체에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공간 감각이 흐트러지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한다.

어지럼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받거나, 갑자기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 수 있다.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괜찮지만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막연한 불안과 함께 어지럼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증상의 형태에 따라 원인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어지럼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의 경우 어지럼증은 낙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두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어지럼증이 반복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불안이나 우울감 등 심리적 문제를 동반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경우에는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전정기관이나 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정 유형의 어지럼증은 자세 교정이나 재활 치료를 통해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나 고개를 빠르게 움직이는 행동을 피하고, 일어설 때는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하다. 실내 환경을 정리해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어지럼증은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증상이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주동
공주의료원 신경과 과장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함께하는 솜씨 자랑



오완석 학습자의 작품 '처음쓴사랑'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어린왕자 별에는 한 송이 꽃이 있어요



충청도 사투리로 읽는 어린왕자



삽화/ChatGPT

"우리 별이는 시상 워디이두 없넌 딱 하나인 꼿이 있유. 워니 날 아침이, 째끄만 염생이가 단번이 그 꼿을 먹어뻔져두 그게 중요허덜 않단 말유?"

"만약이 말유. 누군가 수백만 개의 별 가운디 딱 하나밖에 없넌 꼿을 사랑헌다구 혀봐유. 그는 별덜을 츠다보기만 혀두 행복헐 거유. '즈기 워딘가이 내 꼿이 있어.' 이렇기 생각허겄쥬. 근디 염생이가 그 꼿을 먹어뻐리믄 그는 모든 별덜이 눈깜짝헐 새이 없어져버린 즐망이 빠질 규. 그게 중요허덜 않언 일이유?"

어린 왕자가 울음을 터띠렸어.

워니새 밤이 내렸어. 주위가 깡까마지구 나는 비양기를 해체허던 망치를 내려놨어. 물이 떨어져 목이 타거나 죽넌 일이 중요허덜 않었어. 워니 별, 워니 행승, 이 지구 우이 내가 위로히 주야 헐 왕자가 있었지! 나는 팔을 벌려 왕자를 품이 안었어. 안구서니 가만가만 등을 으루만졌어. 그리구 말혔지.

"늬 꼿은 우혐허덜 않여…. 염생이의 입이다 씌울 입마개를 그셔주께…. 늬 꼿이 안즌허게 유리 덮개두 그셔주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꽃이에요. 내게만 존재하는 꽃. 사하라 사막에 추락하여 헤매던 5일째 되던 날 어린왕자가 다시 찾아와요.

어린왕자의 별에는 한 송이 장미꽃이 있어요. 왕자는 그 장미꽃을 사랑해요.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이거든요. 그 꽃을 양이 먹어 치우면 어쩌나 걱정해요. 나는 비행기를 고치는 게 중요하지, 꽃은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해요. 이에 왕자는 화를 내고 울면서 말하죠. 돈보다 중요한 게 꽃이라고. 목숨보다 중요한 게 꽃이라고.

우리에겐 꽃밭 속의 수많은 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마주한 한 송이 꽃이 중요하죠. 모르는 수천의 사람들보다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잊고 종종 돈에 쫓기거나 명예에 쫓기죠.

나는 어린왕자의 아픔을 가만히 안아줘요. 그리고는 양의 입에 씌울 입마개를 그려주죠. 장미꽃을 보호해줄 유리 덮개도, 그려주고요.



이 명 재 시인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볶고 짜고 빻는 27년 정성 '고소한 신뢰' 잇다

충남이어家

대를 이은 열정과 도전
⑫ 당진 충남상회방앗간

부친 정직한 원칙에 현대화 더해
"지역민과 두터운 신뢰 진짜 유산"

충남 당진시장의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참기름, 들기름의 고소한 향과 보리 볶는 냄새가 한데 어우러진 공간을 마주하게 된다. 27년 넘게 당진시장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충남상회방앗간'이다. 최근 시장 재개발 공사 여파로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새로 올린 간판 아래로 단골들의 발길은 여전히 분주하다. 이곳은 1대 조한중 씨의 뒤를 이어 아들 조정상(44) 씨가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일터다.

조정상 대표에게 어린 시절 방앗간은 그리운 추억보다는 극복해야 할 노동의 현장이었다. 당시만 해도 방앗간 기계화가 더뎌 대부분의 공정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다. 조 대표는 "그 시절 방앗간은 온통 수작업으로 하는 일이 많아 고된 노동의 현장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땀 흘리며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나중에 힘든 일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충남상회방앗간 대표상품 들기름과 참기름.

실제로 그는 성인이 된 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평범한 회사원의 삶을 살던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가업을 이어보지 않겠냐는 아버지의 권유였다. 고민 끝에 조 대표는 다시 당진으로 내려왔다.

방앗간 일은 이론보다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기술이 많았고, 무엇보다 '원물'을 보는 안목이 승패를 갈랐다. 조 대표는 "원물에 대한 이해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연구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버지가 남겨준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조 대표는 "오랜 세월 아버지가 쌓아온 단골손님들과 좋은 원물을 수급할 수 있는 산지 농가 및 업체들의 리스트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산이었다"고 강조했다. 아버지가 지켜온 '좋은 재료'라는 원칙은 조 대표가 가업을 이어가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됐다.


충남상회방앗간 조정상 대표가 충남 이어가 현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조 대표는 가업을 잇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입혔다.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설비의 현대화다. 그는 "수익이 생길 때마다 기계를 사들여 노동력을 절감했다"며 "전통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앗간을 만드는 길이라 믿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 국한됐던 판로를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채널로 확장하며 당진을 넘어 전국의 소비자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주력 상품인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조 대표만의 고집이 담겨 있다. 100% 국내산 원물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저온 로스팅' 기법을 고수한다. 원물을 태우지 않고 은근하게 볶아낸 뒤, 딱 한 번만 압착해 기름을 뽑아낸다. 조 대표는 "아버지가 가장 강조하시던 것이 청결과 신뢰였다"며 "언제나 좋은 원물을 사용하는 가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방앗간 경영 14년 차에 접어든 그에게 가장 큰 보람은 '사람'이다.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덕분에 지역민들과의 유대는 가족만큼이나 끈끈하다. 조 대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겪었던 뭉클한 일화를 전했다.

"가족 모두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갑작스럽게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손님들이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기다려주셨다. 가게 앞에 물건을 툭 두고 가시며 '몸 괜찮아지면 나중에 처리해달라'고 문자를 주시거나, 문 여는 날만 기다리겠다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다시 새겼다. 조 대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서로 믿고 돕는 관계가 지역 사회의 진정한 힘"이라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방앗간을 '모든 요리의 시작'이라고 정의한다. 누군가의 생일상을 위한 고춧가루, 명절 음식을 위한 고소한 기름, 잔칫날의 떡까지. 방앗간은 항상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손님들이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 시작이 완벽할 수 있도록 더 정성을 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해든 deun127@korea.kr

보령 관당초 마지막 졸업식 '역사 속으로'

학생수 감소로 웅천초로 통합

보령 관당초등학교(교장 이경자)는 1월 9일 강당에서 학교 통폐합을 앞둔 마지막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생과 학부모, 교직원 뿐만 아니라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관계자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함께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사진〉

관당초등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오는 3월 1일자로 웅천초등학교로 통합된다. 6학년 졸업생 5명과 학부모 및 재학생들의 축하를 받으며 진행된 졸업식은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관당초가 걸어온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6년간의 활동을 담은 동영상과 재학생들의 축하 영상은 선후배간의 따뜻한 정을 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관당초는 지난 53년간 지역 학생들의 배움터로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성장해왔으며, 이번 졸업식을 통해 그 역사와 전통을 마무리했다.

졸업생들은 교가와 졸업식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학교와의 작별을 고했고, 선생님과 후배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초등학교 생활을 뜻깊게 마무리했다.

이경자 교장은 "관당초의 마지막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며, 이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꿈이 더 넓은 세상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53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주간보령 최예지 기자

서산버드랜드 황새 부부, 4년 연속 번식

원거리 설치 CCTV 산란 확인

서산시는 버드랜드의 황새 부부가 4년 연속 번식에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시는 1월 29일 황새 둥지 보호를 위해 원거리에 설치한 시시티브이(CCTV)로 황새의 산란을 확인했다.

이번 산란은 지난해와 같은 날 이뤄진 것으로, 현재 1개의 알이 확인됐으며 추가 산란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황새 부부는 지난 2023년 야생 수컷과 방사 개체 암컷이 짝을 이룬 것으로, 서산버드랜드에 마련된 둥지에 서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4개를 시작으로 2024년 5개, 2025년 4개의 알을 성공적으로 부화시켰으며, 새끼들은 건강하게 자라 독립했다.

심영복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은 "시는 태어날 황새들이 서산 천수만으로 건강하게 비상할 수 있도록 번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새 둥지는 서산버드랜드 누리집을 통해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서산시대 김정인 기자



올해 또…둘 아닌 가족의 이름으로

유희승·이은영 부부
3년째 청소년 후원금 기탁

유희승·이은영 부부가 올해도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따뜻한 응원을 이어갔다. 〈사진〉

이들 부부는 1월 24일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후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2024년 500만원, 지난해 600만원에 이어 올해도 변함없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이들 부부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을 전후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단체에 후원금을 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후원은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홍성이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단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성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싶다는 부부의 마음이 꾸준한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부의 어린 자녀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직 돌이 되지 않은 쌍둥이 준희와 재희는 부모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후원금은 '부부'가 아닌 '가족'의 이름으로 전달됐다.

이은영 변호사는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홍성의 아이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고 유희승 한의사는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홍성에 정착해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다"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을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혔다.

/홍성신문 윤종혁 기자

백문당은 빵집이 아닙니다

내포칼럼



홍상은
공주문화관광재단
관광진흥센터장

'빵지 순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국에 유명한 빵집이 많이 있다. 대전에 '성심당', 군산에 '이성당' 등 유명 빵집들은 그 자체만으로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얼마 전 공주 시내에 "백문당은 빵집이 아닙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왔다. "재단에서 붙인 거 같은데, 무슨 내용이냐?", "그럼 빵집이 아니고 뭐냐? 약국이냐?" 등의 내용이었다.

공주에 새로 생기는 '백문당'은 빵집이 아니다. '백제문화전당'이라는 복합문화시설의 줄임말로, 공주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빵빵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작년에 공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백제문화전당의 콘텐츠 조성을 맡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별 자신이 없었다. 건물은 한창 짓는 중이었고 우리 생각대로 그 기능을 수정하기에는 이미 늦은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올해 안에 준공이나 하겠냐?", "상설공연과 전시로 내용을 채워서 시일 안에 개관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면의 소리가 올라왔다. '글쎄, 백제문화전당은 나도 처음이라...' 하지만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걸 누가 장담하겠어요?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선 재단에서 공연과 전시에 가장 적합한 인재들로 TFT(임시로 편성한 팀)를 꾸렸다. 능력 있는 팀원들이었지만 기존 소속팀 업무 외에 추가로 새로운 일을 해야 했기에 버거워했다. 시기와 질투를 기저에 깔고 잘못할 거라는 믿음(?)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팀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끝까지 완벽하게 잘할 수 있을지 장담은 못 하겠어. 하지만 지금 우리 말고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게 가장 낫다고 봐. 일은 힘들겠지만 새로운 복합문화시설을 만드는 일을 어디 가서 또 해볼 수 있겠어? 백문당을 개관하고 나면 우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거야."

> **개관 앞둔 백제문화전당 공주시 최고의 복합문화시설**
> **상설공연 3종과 미디어아트 전시, 체험공방까지 다채**
> **천오백년을 기다려온 공주시민의 새로운 보물이 될 것**

새로운 팀원들이 들어오고 진영을 갖춰서 작년 2월부터 준비를 하고 이제 2월 말 개관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공간에서 손발을 맞추고 일을 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몇 번의 위험과 우여곡절을 넘겼다. 다행히 실력 있는 전시업체와 공연기획사와 일하게 되어 무사히 개관할 수 있을 것 같다.

백제문화전당은 '스타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예산을 마련했고, 2024년 4월에 기공식을 하고 지난해 12월 말 준공했다. 2026년 2월에 상설공연 3종과 미디어아트 전시, 체험공방과 기념품숍, 식당과 카페까지 명실상부 공주 최초이자 최고의 복합문화시설이 될 것이다.

상설공연은 뮤지컬 '더 킹: 무령', 다원공연 '비트 인 더 미러: 빔(Beat In The Mirror: BIM)', 가족극 '왕관을 찾아서: 진묘수와 시간의 문'을 준비 중이다. 미디어아트 전시는 '빛으로 잇는 시간—백제'를 주제로 관람객들을 맞는다. 기념품으로는 진묘수를 캐릭터화한 '무무'와 '릉이'가 독특하고 친근한 귀여움을 장착하고 탄생했다. 체험공방은 공주의 도자, 섬유 등을 주제로 도자와 섬유체험,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3D체험으로 구성된다.

공주는 높은 건물이 없다. 일설에는 그 이유가 '땅을 파면 유물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땅 밖에 나와 있는 유물과 유적으로도 충분히 보물 같은 도시이다. 사람들은 느긋하고 친근하며 여유롭다. 이 여유는 종갓집 며느리가 가진 그것과 비슷한데, 그건 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오랫동안 뿌리박힌 깊이 있는 삶에 기반한다고 생각한다.

신도시들은 그러한 뿌리가 없어서 새로운 축제를 만들고 억지로 관광지를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주는 이미 보물이 갖춰져 있다. '천오백 년을 기다렸다'는 공주시민의 자부심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도시 곳곳에 산재한 보물들을 잘 연결하고 갈고 닦으면 된다. 여기에 재미있는 백제문화전당이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보물 같은 공주에 사람들이 북적이도록 백제문화전당이 새로운 보물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기대하시라, 백문당 개관박두!"

김민지 시인의 산책 편지



조심과 조바심

처한 상황이 위험하지만 않아도 다른 무언가를 꿈꿀 여력이 생깁니다. 살아가는 동안 생존이 걸린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0순위 숙제입니다. 먹고 자는 일만 잘해도 다음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경험. 어려울 때일수록 깊게 했던 경험인데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주 있는 경험 같아요.

얼마 전 본 여행 프로그램이 떠올라요. 추운 날씨 숙소 예약 없이 여행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몇 시간 동안 헤매고 있었습니다. 성수기라 빈방도 없고 그나마 있어도 너무 비싼 방만 남아 있어 곤란함의 연속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혼이 나가 있을 그즈음. 혹시 몰라 제작진이 예약해 둔 여분의 방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제야 밀려온 허기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생각과 이제부터 어디를 구경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다음을 챙길 만한 여력이 생긴 것이죠. 누군가의 대비 덕분에요.

이러한 일들이 꼭 여행지에서만 체감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는 일이 여행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요.

관광하건 휴양하건 그건 후차적인 문제이고 일단은 거처와 동선을 확실히 하는 방법부터 찾는 것. 일상에서도 그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거나 쉬어갈 틈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긴장을 풀게 할 만한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운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일이 하나라도 생긴다면 확실히 운이 좋은 쪽에 속한 겁니다.

어쩌면 마냥 좋은 운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개운할 방법을 찾는 쪽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존에 유리한 사람은 아무래도 조심성이 있는 사람인 걸까요.

조심성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조심(操心)은 마음을 잡는다는 뜻으로 실수나 잘못이 없도록 여러모로 신경을 쓰는 것이니까요. 나와 남에게 좋은 작용을 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나 조심성이 너무 지나치면 어떨까요? 한없이 피곤해집니다. 자신은 물론 주변도요. 매사 조심하기만 하면 살았다 싶은 순간에도 좋은 것을 하나도 못 느낀 채 지나쳐 버립니다. 추억이라는 것을 쌓아갈 수 없고 쌓아본 적이 없거나 드물어서 쌓아갈 이유조차 못 느끼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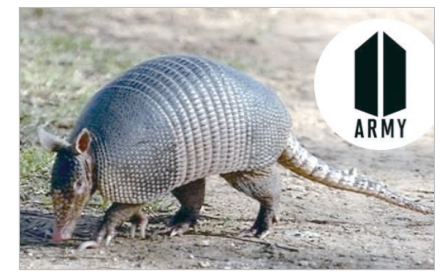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져 조마조마한 마음. 조바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날들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잠깐의 긴장으로 마음을 졸여보는 경험도 살아가면서 해봐야 하는 경험이겠지만, 그 경험으로 도배된 평생이라면 정말이지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간절함과는 다릅니다.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한 시간 속에서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살아갈 만한, 살고 싶은 날들을 위해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나 안정된 삶의 척도가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갖추되, 그 기준을 재정립하게 하는 일생일대의 사건에 미리 너무 많은 겁을 먹지 않기를. 주어진 날들 속에서 다만 간절해지기를 조심스럽게 빌어보는 날들입니다.

총알 튕겨내는 방탄조끼 입다

재미있는 동물사전
아르마딜로



아르마딜로.
※그림출처 : https://missouripoisoncenter.org/armadillo-the-little-armored-one/

한국의 국가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K-pop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컴백 일자가 2026년 3월 20일로 공개되어 전세계 아미들이 기대하고 있다.

방탄소년단(防彈少年團)이라는 이름에서 방탄은 '총알을 막아낸다'라는 뜻이 있다. 그 의미는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일, 편견과 억압을 우리가 막아내겠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방탄'이라는 단어를 보고 '방탄 조끼'를 입은 동물인 아르마딜로를 떠올리게 되었다.

아르마딜로는 척삭동물문, 포유강, 피갑목에 속하는 동물이며, 위협을 느끼면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아버리는 것으로 유명해진 동물이다.

아르마딜로(Armadillo)라는 이름은 '무장한, 무기를 갖춘(아르마도/armado)'이라는 형용사에 축소형 어미(-illo)가 합쳐져 '무장한 조그만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르마딜로의 등껍질은 칼슘과 인산염으로 구성된 골질판(Osteoderm)과 케라틴, 콜라겐이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어서 유연성을 지니면서도 이빨과 같은 외부충격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아르마딜로는 크기도 작은 것은 16㎝에서 큰 것은 1m 정도로 다양하고, 미국, 남미등 서식지도 다양하며, 종류도 다양하다. 모든 아르마딜로가 공처럼 완벽하게 둥글게 되지는 않으며, '세띠아르마딜로' 속 만이 완벽한 공



모양으로 숨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홉띠아르마딜로를 포함한 나머지들은 구조상 완벽한 공이 되지 못하여 팔다리가 노출되어, 맹수가 공격하면 노출된 부위가 뜯겨나가 불구가 되기도 한다.

아르마딜로의 최대의 방어는 갑옷으로 막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이 방어가 최대의 공격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어느 남성이 앞뜰에 출몰한 아르마딜로에게 총을 세 발 쐈는데 그 중 한발이 반사되어 그 총 쏜 남성의 턱으로 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남성은 아르마딜로에게 총을 쏘았는데 그 한발이 튕겨져 나가서 옆집의 장모님 등에 박혔다는 기상천외한 뉴스도 있다.

남에게 상처를 내거나 남을 꺾으려는 공격에 집착하지 말고 때로는 공처럼 몸을 단단히 말고 방어하며 나를 지키는 선택이 가장 깊고 단단한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박수진 수의사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충남·대전 행정통합, 의회 독립성 확보로 완성”

충남도의회·대전시의회 의장 공동 기자회견
입법·대의기관으로서 의회 권한 보장 촉구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왼쪽)과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월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자치권 확대 및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1월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 및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을 규정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 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


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시군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적십자 활동은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발적 봉사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과 협력하는 공적인 활동”이라며 “충남의 적십자봉사회 역시 재난 발생 시 급식지원과 구호물품 전달에 즉시 나서고, 평상시에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돌봄, 반찬 배달, 연탄 나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해 왔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협력 주체로 재정립하기 위해 ▲15개 시군 적십자봉사회 사무공간·창고·교육장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유휴 공공청사 및 재난안전 관련 시설과 연계한 전용 활동공간 확보 ▲사무·보관·교육 기능을 갖춘 ‘충남형 적십자 봉사활동 공간 기준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 이익 끝까지 확보해야”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은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충청남도가 도민 참여와 충남의 이익을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이 충분히 이해·납득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본청사 위치·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부터’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에 충남도에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별 설명회·상시 소통창구 즉시 가동 ▲쟁점별 대안·판단기준 제시 및 공개 검증·합의 틀 상설화 ▲여론조사·숙의 절차로 도민 뜻 확인 후 로드맵·일정 재정비(필요시 출범 시기 조정)를 제안했다.

조례안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충남도로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충남도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재외동포의 도내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주를 위한 행정 안내·상담, 한국사회·문화 적응 교육,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업, 정착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국내외 협력 추진 근거 등을 담았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 정착 장려금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한 소중한 자산인 재외동포를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고 우리 충남이 재외동포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 실효성 강화 지원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월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은 산업경제실 업무 보고에서 "이동노동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 정비 관련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충남테크노파크 업무 보고에서 "제조기술융합센터가 개소했음에도 토지 분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완전 준공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속한 행정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 관련 지역별 상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지속형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과 관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순환경제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기존 정책에 더해, 최근 급변하는 배터리 산업 환경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은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화 체계 구축과 관련해 "배터리를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활용 부서의 의견이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은 충남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AI 대전환 전략과 관련해서는 농업 비중이 높은 충남의 특성을 반영해 농업 분야 데이터 센터 구축과 AI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은 산업단지 보상·입주·완공 일정이 반복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공동주택 규모 조정, 입주 기업 확보, 기반시설 지원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맞춤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촉구 건의 충남도의회는 1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이 대표 발의한 '지역맞춤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정부는 지역 영농 환경과 재해 특성을 반영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 달라. 국회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별 재해 실태조사 강화와 현실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립미술관 작품 확보 총력 등 요구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국·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은 "반려동물 사고 대비 보험 제도 구축과 대형견 관리 기준 정립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은 "개방 이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에서 이현숙 부위원장(비례)은 "도립미술관 건립이 머지않은 만큼, 전시를 위한 작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는 작품 구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은 천안·아산 돔구장 조성사업의 추진 단계와 향후 일정을 점검하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규모 사업인 만큼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종교문화유산 지원 사업과 관련해 "상징적인 장소들이 소외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정책과 관련해 ="지역의 인구 구조적 특성을 정책에 정밀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은 "생활이 어려운 무형문화 전승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승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쓰레기 반입 차단 대응 철저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월 22일 제36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은 환경산림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서울·수도권에서 충남으로 반입되는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가글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대기오염 관리, 도유지 불법행위 단속, 산불 예방·대응 등 환경산림 분야 업무와 관련해 "AI와 드론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경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 또한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수도권 쓰레기의 충남 반입과 관련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타 지역 쓰레기 반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석면 조사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30~40년 이상 된 축사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는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며,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은 "화학공장 등이 신도시 주변에 위치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이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다량 배출되고 있다"며 "폐수와 대기로 방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민 실질적 피해 대책 마련" 당부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농업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현장 인력 보강과 함께 기술 보급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고수온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실질적인 피해 대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은 "스마트팜 사관학교 선정 과정에서 더 많은 농업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 이전에 임대 운영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관련해 "자부담 비율 인하 등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위원(비례)은 "스마트팜 핵심 기술 개발, 종자 주권 강화, 농업인과의 소통 확대 등 중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깨씨무늬병을 비롯한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은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로 어업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전 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은 "어촌뉴딜 사업과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 시 지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비 부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안전 강화 등 개선책 촉구

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1월 26일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은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은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재운 위원(계룡)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교육정책·학교환경 개선 등 집중 점검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1월 28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 권익 보호와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안 심의가 이뤄졌다. 제·개정 안건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유성재 위원(천안5)은 "교육전문직 인력 확충과 학교지원디지털시스템 고도화로 교육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학교 업무 경감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학교와 기관 차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AI·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방향 전환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은 "학생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과 애정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은 "인성이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연계한 교육과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은 충남도교육청 유튜브 운영과 관련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발굴과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은 "모든 정책이 학생의 성장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 문자 음성변환 바코드 '보이스아이'
스마트폰 구글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충남 농사랑 Nongsarang

2026 농사랑 선물세트

농사랑 설 선물 특별전

고마운 마음, 농사랑이 대신 전해드려요.



설 선물세트



삽다리한과
삽다리선물세트3호
15% 할인가 33,600원 → 28,560원
650g



주식회사해달음
6캔재래선물세트
15% 할인가 35,200원 → 29,920원
캔김 30g 6개



율목영농조합법인
25년 향진주
15% 할인가 41,000원 → 34,850원
10kg



원조소곡주
한산소곡주 선물세트
15% 할인가 41,500원 → 35,275원
750ml*2



금정알밤농원
정안알밤 특
15% 할인가 43,100원 → 36,635원
4kg



하늘안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천안배 선물용배
15% 할인가 46,200원 → 39,270원
6kg 7~8내



연스토리
연잎갈비
15% 할인가 48,300원 → 41,055원
2kg/1팩



부여대봉곶감영농조합법인
대봉곶감 선물세트 1호
15% 할인가 50,400원 → 42,840원
20개입(70g이상/개당)



농업회사법인 (주)금산대근홍삼
큰뿌리홍삼정과
15% 할인가 54,100원 → 45,985원
400g(지함바구니)



농업회사법인옛향기마을방앗간주식회사
옛향기 3호세트
15% 할인가 68,200원 → 57,970원
참기름260ml+들기름26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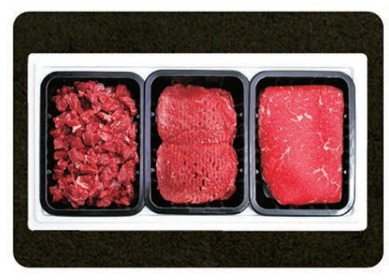
아침농원
아침농원혼합1호
15% 할인가 72,500원 → 61,625원
6.8kg(배 8과+사과 4과)



153양봉원
숙성꿀
15% 할인가 76,000원 → 64,600원
2.4kg



한우드소
한우드소 종합2호
15% 할인가 84,000원 → 71,400원
불고기800g+국거리400g+사태400g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영인산한우
VIP 한우지애 1호~6호
15% 할인가 125,000원 → 106,250원
1호 1.5kg(1+등급/국거리+불고기+산적)

상품 구매는 **농사랑 웹사이트 2026 설기획전**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농사랑 고객센터
070-4866-6365
검색창에 "농사랑"을 입력하세요.

충남 농사랑 바로가기 QR코드

2026 설 카탈로그 바로가기 QR코드